유리(琉璃)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.

* 무슨소리지..? 차고 슬픈 것은 또 뭐고 유리는 뭐냐??

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

* 입김을 흐리운다고..?.. 무엇에 붙어스는거지..?

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.

* 날개는 또 뭐야..? 이해가 가지 않는다.

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

* “도” -> 보조사이다. 아무리 ~~해도 로,

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오거나,

무언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 오겠다.

(보조사 ‘도’의 의미는 앞과 뒤의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 ‘(철수는 공부를 잘한다. 그리고) 농구도 잘한다.’의 문맥에서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’도‘가 ‘(어머! 철수는) 농구도 잘하네.’에서는 놀라움이나 감탄, 실망 따위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‘도’가, ‘(철수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데/ 밖에 있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) 농구도 잘하네.’에서는 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,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‘도’가 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  – 국립국어원 답안)

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,

* 밤이 어떻게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지..? 이해가 가지 않는다.

물 먹은 별이, 반짝, 보석(寶石)처럼 박힌다.

* “처럼” : 유사성에 관한 언급이다. 공통점을 찾아보자.

물 먹은 별과 보석은 어떻게 유사한가..? 둘 다 빛난다. 음. 반짝인다는 얘기구나.

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

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.

* 대놓고 정서를 주었다. 뿐만 아니라 정서 –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.

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. 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장악하는 거다.

**단순히 외롭고 황홀하구나, 할 것이 아니라,**

**정서를 보았을 때는 이 정서를 느낄만한 상황인지**

**체크해야한다.**

“외로운 황홀한 심사”를 “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면서 느낀다

음 아 이제 좀 이해가 간다. 앞에 있었던 말들도

입김을 흐리우고 유리를 닦고, 입김을 흐리우고 유리를 닦는 일을

반복한 거다.

이제 다시 앞 부분을 이해해보면

유리(琉璃)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.

열없이\*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

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.

* 아 여기까지 유리에 계속 입김을 불고, 그것 때문에 날개 모양이 보인단 거고,

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

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

,물 먹은 별이, 반짝, 보석(寶石)처럼 박힌다

* 입김을 지울때마다 밤하늘이 보이고 거기에 별이 보인다는 거다.

그게 보석처럼 반짝이고 그런데 왜 “물 먹은 별”이냐?

고운 폐혈관(肺血管)이 찢어진 채로

아아, 늬는 산(山)새처럼 날아갔구나!

* 1. 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.

그러나, 폐혈관이 찢어진 거면, 아마 너는 죽었겠지..

폐혈관이 난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

폐에 있는 혈관이고 죽은게 맞지 않을까..?

2. 날아갔구나! – 아, 날아갔다. 라고 하고 끝낼게 아니라,

“날아갔구나!” 라고 영탄한다. 근데 영탄법이 쓰였다 이따위께 중요한게 아니고,

이 화자라는 양반한테는 “너가 죽은게 엄청나게 임팩트 있었다” 라는 얘기이다.

다시 말해 화자가 영탄법을 쓸만한 상황은 무지하게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

“상황”이었다는 거다.

하나만 더 생각해보자.

“날아갔구나”- 라는 말은 무엇이 생략되어있을까.

“새는 하늘로 날아간다.”

그리고, 이 사람은 현재 유리창을 지웠다가 다시 불었다가 하면서

밤 하늘의 별을 보고있다.

아.. 이 양반은 아마도 “늬”가 죽어서 밤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.

(이거는 현장에서는 추론 못한다.)

그럼 이제

쭉 정리해보자.

이 시에서

상황은 크게 두가지이다.

1. 유리창 앞에 붙어서 혼자 입김을 불었다 그걸 지웠다를 반복한다.

그 유리창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.

1. 폐혈관이 찢어져서 죽은 지인이 있다. 그 지인이 죽어서 밤 하늘의

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중이다.

정서는 크게 한가지이다. “외롭고 황홀하다.”이다.

음 그런데 이 둘을 기계적으로 처리할게 아니다. 한번 둘 사이를 엮어보자.

다시 말해 상황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, 또 정서는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거다.

(둘 사이를 약간의 인과성을 기반으로 파악해야한다.)

일단 아는 지인이 죽었다.-> 상황만 봐도 썩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. 오히려 슬프겠지.

그리고 좀 더 주변을 관찰하다보면..

슬프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“물 먹은 별” 이다.

아마도 “물 먹은 별”은 눈물이 들어간 별 일 것이다.

별이 빛나면 빛났지 물을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.

둘 사이를 합쳐보면,

지인이 죽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, 그 지인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, 유리창 앞에서 혼자 입김을 불어서 지웟다 다시 불었다 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다.

그렇다면 왜 입김을 불까.?

* > 이 부분 부터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다.

추론의 영역이다.

다만, 몇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,

내 개인적인 생각은 아들이 보고싶어서 입김을 지웠다가 맴이 찢어질 거 같아서 다시 입김을 불어넣은 것 같다.

또 다른 해석은

아들을 더 잘 보려고 유리창을 더 맑게 닦으려고 이다.

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.

<행동영역 정리>

유리(琉璃)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

.열없이\*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

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.

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-🡪2

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,

물 먹은 별이, 반짝, 보석(寶石)처럼 박힌다. -🡪 3

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

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. --🡪 1

고운 폐혈관(肺血管)이 찢어진 채로

아아, 늬는 산(山)새처럼 날아갔구나! -🡪 4

1.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넘겨라. 명확하게 “정서”를 주는 부분이나 “상황”을 바로 캐치할

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해해라. 그것을 기반으로 나머지를 풀어갈 수 있다.

1. “도” 는 여러 성격을 지니는데 이 중 예외적인 것을 알려주는 성격이 있다.
2. “처럼” 을 보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생각해야한다.
3. ! 와 같은 영탄적 표현은 “표현 그 자체”가 중요한게 아니라, 이 상황이 화자에게

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, 그 앞 상황을 시 내부의 정서들과 연관지어야 한다는

점이 중요하다.